

이소연 박사에게 듣는 2009 '도전과 희망'

기회는 누구에게나... 우주의 꿈 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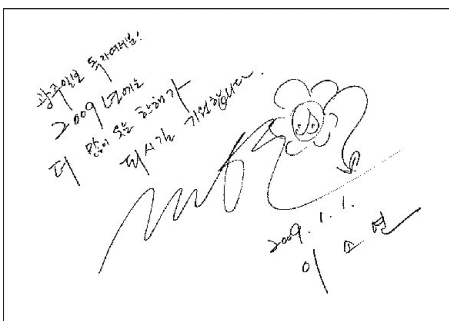
지난해 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위기는 곧 기회다.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고 광주·전남 고향민들께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대단한 발견들과 기술들은 불편함에서부터 왔습니다. 불편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지 않았겠죠."

우리 나라 최초로 우주에 다녀 온 광주 출신 이소연(30·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사는 "과학기술은 도전에서 출발한다"며 "자신이 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고 청소년과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새해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소연 박사는 지난 2008년을 '우주 도전 원년'으로 만들었다. '은하철도 999'와 '로봇 태권브이'를 좋아했던 '광천동 소녀'가 3만6천206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주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10일간의 우주임무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주의 꿈'을 심어줬다.



발사성공 확률이 고작 27%라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직접 만들고 발사를 시도했다는 그 과정 자체를 중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를 예로 들었다. 55년 전인 1954년 미군 수송기를 얻어타고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 9대 0이라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선배들이 없었다면 2002년 '월드컵 4강'이라는 영광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이다.

"과학은 물·불 가리지 않고 성공에만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과정 과정이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분석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는 과학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격려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

대한민국 NO.1 행복출발위원회

The One by (주)행복출발

2009년 새해 대한민국 모든 돌싱 여러분께 행복한 출발을 기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출발 초빙지역출발 나 댜 기사칼럼 대니피워롱

무료상담 6621527-3388

● 이소연 박사는

- ▶출생지 : 광주
- ▶생년월일 : 1978년 6월 2일(양력)
- ▶가족사항 : 1남2녀 중 맏이
- ▶혈액형 : A형
- ▶키 : 164cm
- ▶몸무게 : 58kg
- ▶성격 : 명랑 쾌활 사교적 낙천적
- ▶취미 및 특기 : 영화·음악 감상, 노래, 태권도
- ▶학력 : 송원초교, 송원여중, 광주과학고, KAIST 기계공학 학사·석사, 바이오 및 뇌공학 박사
- ▶소속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KAIST 겸직교수
- ▶수상 : 세종문화상 특별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2008 달고 싶은 스타과학자상
- ▶기타 : 과학기술 홍보대사,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홍보대사



월드컵 4강 신화처럼 '나로의 꿈과 희망' 현실로 과학이 존경 받는 풍토 만들어야 삶이 풍요로워

이제 2009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광천동 소녀'가 심어 놓은 '우주의 꿈'이 새해에는 고희 나로우주센터에서 'KS-LV-1(한국형 소형 위성발사체) 성공 발사'로 열릴 것이다.

지난 12월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소연 박사를 만났다. 이 박사는 '나로의 꿈과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나로의 꿈과 희망'은 '나로' 그 자체에 있다고 했다.

"우주센터나 우주박물관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정거장을 처음 고안한 짜알콥스키의 생가 인근에 러시아 최대 항공우주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웁니다. 심지어 그 마을 밖 나서는 달과 로켓같은 우주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주 강국 러시아의 힘은 그 나라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도 올해 2분기에 나로우주센터에서 첫 자력 발사 로켓인 'KS-LV-1'이 발사되면 '우주 나사'를 하는 어린이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주강국의 미래를 예견했다.

하지만 '나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설부른 기대도,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자고 제언했다. 처음 발사하는 로켓의

야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이소연 박사는 광주일보와의 인연도 깊다. 송원초등학교 재학시절 '호남예술제'에 세 차례나 참여했다. 6학년 때인 1990년 제35회 호남예술제 성악(독창) 부문에서 그는 금상을 수상했다. 그는 '특기'를 물으면 서슴치않고 노래를 꼽는다. 호남예술제에서부터 갈고 닦은 실력이다. 그는 그때 맺은 광주일보와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 박사는 자신의 꿈은 "과학자들의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주인'의 경험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우주에 다녀온 뒤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2~3건의 강연을 소화하고 있다. 과학도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다.

"저에겐 '한국 최초 우주인'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죠. 제가 어릴때 만화 '로봇 태권브이'를 보면서 공학도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저를 보면서 우주연구자를 꿈꿨으면 해요."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